

과일·채소값 내리고 한우·돼지고기는 오르고

딸기·사과 등 '따뜻한 겨울' 수확량 급증... 절반 '뚝'

육류는 사육두수 줄고 수산물 파동 영향... 20% '쑥'

과일과 채소 등 대부분의 신선식품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한우와 돼지고기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한우 암소의 평균 도매가격은 1만3707원(1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 올랐다. 같은 기간 돼지고기도 1kg당 3578원으로 지난해보다 19.6%나 증가했다.

지난해 무(無)태풍에 수확량이 늘고 기 가격이 급락하며 축산 농가에서 사육두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일본 방사능 유출 사건 이후 수산물 대신 육류 수요가 늘며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겨울 제철 과일인 딸기는 꽃이 교체 시기로 접어들며 두 번째 물량이 순조롭게 출하되고 있어 2월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9% 하락했다.

지난해 무(無)태풍에 수확량이 늘

어 비축 물량이 많아진 사과와 배도 30% 이상 가격이 하락한 상태이며 따뜻한 겨울로 인해 생산량이 급증한 채소류의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채소의 도매가격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시금치는 4kg 상등급 한 상자의 도매가가 5711원으로 지난해 1만4086원보다 59.5%, 적상추는 같은 무게에 7164원으로 51.9% 하락했다.

수산물 역시 마찬가지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방사는 이슈로 추축한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 주요 수산물도 전년보다 5~15% 가량 가격이 떨어진 상태다.

축산물의 가격 상승 추세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상승이 수산물 소비를 줄인 소비자가 육류 소비를 늘리고 생산량도 줄인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우 농가는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지난해 암소 도축 물량을 늘렸으며 그 결과 암소를 포함한 전체 한우 사육두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292만 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 306만 마리보다 4.1% 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암소 사육두수는 감소폭이 더 커 5.5%가 줄어든 117만 마리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암소 도축으로 인한 송아지 생산 감소

로 올해 3월 전체 사육두수를 지난해 말보다도 줄어든 277만 마리로 전망하고 있어 한우 가격 상승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도 수산물 대체 수요 증가와 지난해에 비해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오르는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돼지 사육두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991만 마리로 1년 만에 1000만 마리 미만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는 2011년 구제역 이후 돼지 농가에서 입식을 크게 늘린 까닭에 사육두수가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은 1000만 마리 이상을 유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8도 소주' 시대

순한 술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에 맞춰 '처음처럼' 알코올 도수가 19도에서 18도로 내려간다. '참이슬'도 조만간 18도 제품이 출시된다.

롯데주류는 17일부터 소주 '처음처럼' 주력제품의 알코올 도수를 1도 낮춰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품은 강원지역에 우선 출시되고,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거쳐 점차 전국에 공급될

2007년 도수를 19.5도로 낮추면서 '19.5도 소주시대'를 주도했다. 이어 2012년 6월에는 처음처럼 제품 3종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면서 알코올 도수를 19도로 낮췄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영업현장이나 소비자 조사결과를 보면 최근 부드러운 목넘김, 순한 맛, 구구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인데다 도수인하 등으로 부드럽고 순한 소주시장을 이끈 것이 처음처럼이었던 만큼 고객 트렌드에 맞춰 도

'처음처럼' 알코올 1도 낮춰 부드럽게

2007년후 7년만에... 참이슬도 곧 내릴듯

다. 롯데주류는 최근 소비자 조사에서 부드럽고 순한 소주를 원하는 고객의 욕구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알코올 도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알코올 도수가 더 낮은 제품('처음처럼 콜', 16.8도)이 있었지만, 주력제품의 알코올 도수가 18도대로 내려가는 것은 2007년 이후 7년 만이다.

21도 소주가 주류를 이뤘던 2006년 20도 제품으로 부드러운 소주의 장을 연 처음처럼은

수를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18도 처음처럼'은 360ml 용량에 출고가는 946원이다.

경쟁사인 하이트진로도 조만간 '참이슬'의 주력제품 알코올 도수를 18도로 내릴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부드러운 소주를 선호하는 젊은 고객들의 입맛에 맞춰 18도 참이슬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시장에서 이 제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카드 3사 오늘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철폐'

카드대란 이후 12년만에... 당국 "모집인 생계 보장"

금융당국이 17일부터 대규모 정보 유출 카드사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카드 모집인에 대한 생계 보장을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 카드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2002년 카드 대란 이후 12년 만이며

처벌 수위는 훨씬 강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제재심의 위원회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에 대해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을 각각 결정하고, 금

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이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이번 카드사 영업정지와 관련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카드 모집인의 고용 불안이다. 최근 금융사 텔레마케팅(TM) 영업 중단 행에 대해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을 각각 결정하고, 금

융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들 카드사가 영업 정지에 들어가더라도 카드 모집인 조직을 유지하도록 강력히 압박할 계획이다.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은행의 카드 부문 모집인은 4000여명이고 이들 대부분은 자영업 형태로 카드 모집 활동을 하면서 150만~200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임금으로 받는다. 결국 이들은 평균 성과급의 60%를 영업정지 기간에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영업 정지 카드사들도 카드 모집인

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본사 직원들을 재교육 및 장기 휴가 형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들 카드사의 영업정지는 오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다. 이 기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신규 회원 모집과 발급을 할 수 없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도 신규 약정은 안 된다.

다만,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 목적이면서 대체 가능성이 없는 카드의 신규 발급은 허용된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웨딩드레스 패션쇼
지난 15일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에서 열린 올해 첫 웨딩드레스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올 유행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산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전문 웨딩드레스 업체인 '하야로비 웨딩드레스'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패션쇼에서는 100여종의 수입 웨딩드레스가 선보이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광주신세계 제공>

초콜릿 매출 늘고 와인·남성화장품도 인기

지역백화점, 밸런타인데이 매출 분석

올해 지역 백화점들의 밸런타인데이 관련 상품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초콜릿의 매출이 급등했으며 머니클럽이나 백팩 등 실속형 선물도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와인이나 수제초콜릿도 여전히 사랑을 받았다.

16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밸런타인데이 특별기획된 행사 매출을 분석한 결과 초콜릿 등 선물용 상품의 매출이 전년 동기 13% 신장했다.

2~3만원대의 초콜릿 세트가 18% 신장했으며 남성용화장품도 1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실속형 선물의 선호에 따라 실생활 활용도가 높은 10만원대 머니클럽이 14% 신장하는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신학기 봄 시즌과 수

요가 겹치면서 백팩도 인기 품목으로 등장했다.

초콜릿과 함께 와인의 선호도도 급성장해 관련 상품의 판매도 늘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와인판매 매출을 분석한 결과 와인 관련 상품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8.7% 신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로 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소비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모스카토 빌라렌 등 2~3만원대 화이트와인이 인기를 얻었다. 이와 함께 수제 초콜릿의 인기도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콜릿 매출에서 수제

매출 비중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가격대비 효과와 나만의 선물에 대한 요구가 매출 신장의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또 초콜릿 수제제품의 판매 제품 수도 크게 증가, 선택의 폭을 넓힌 것도 인기 비결이다. 실제로 지난해 밸런타인데이 수제 초콜릿 제품의 수는 10개 가량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28개로 약 3배가량 증가했다.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 빼빼로데이에도 완제품 대비 수제품 매출 비중이 46%까지 올라갔다"며 "기념일에 완제품 보다 비용을 절감하면서 자신만의 개성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전달하려는 소비자의 수요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수협, 여수 기름 피해 특별자금 50억 확정

수협중앙회가 우이산호 사고 수습과 피해 어업인 배상을 위해 50억원의 특별자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수협은 향후 배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피해입증 단계에서부터 어업인들이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돕기 위해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어업피해보상 자문위원단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협공제에 가입한 피해어업인에 대한 공제료 납입은 6개월간 유예하고 최근 불거지는 사고지역 생산 수

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법률 자문도 하기로 했다.

수협은 최근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우이산호 사고로 인한 유류피해 어업인들의 생계 유지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공고-제03호)

2014년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시행 공고

「2014년도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과제 시행을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호남권, 대경권, 제주권 각 1개)

과제명	총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백만원)			과제유형
		1차년도 연구비	연간 연구비	총연구비	
1 (호남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14. 05 ~ '19. 02 (4년10개월)	364이내	연간 1,000내외	5,000 이내	연구단
2 (대경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14. 05 ~ '19. 02 (4년10개월)	364이내	연간 1,000내외		
3 (제주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14. 05 ~ '19. 02 (4년10개월)	364이내	연간 700내외	3,000 이내	

*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공고-제03호) 2014년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ctpass.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건설사업본부 도시건축사업실(송백빌딩 2층 고객대기실)
- 신청서 접수일정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4. 02. 17(월) ~ '14. 04. 03(목)	'14. 02. 17(월) ~ '14. 04. 02(수) 18:00까지	'14. 04. 03(목) 18:00까지

6. 사업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14. 2. 24(월) 16: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층 통합회의실

7. 문의 및 기타

-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사업본부 (031-3896-340, Fax : 031-382-6353)
 - 공고내용 관련 : 도시건축사업실(340)
 - 인터넷 입력 등 전산시스템 관련 : 경영지원팀(33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공고-제03호) 2014년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시행 공고안내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2014년 02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